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 메타분석

A Meta-Analysis of the Life Satisfaction-Related Variables for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공은화*, 신유경**
대구보건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Eun-Hwa Gong(nemo6881@naver.com)*, Yu-Kyung Sin(sin602@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연구물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관련변인들과 Cohen(1992)의 기준으로 작은 효과크기와 중간 효과크기의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개인특성 변인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국적취득여부가 작은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심리변인 및 다문화 관련변인의 하위변수 중에서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태도의 효과크기가 중간 효과크기와 큰 효과크기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사회적지지 변인의 하위변수들과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계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상생활 및 배우자 관련변인의 하위변수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론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여성 | 생활만족도 | 메타분석 |

Abstract

In order to investigate variables related to the life satisfaction of women from the multi-cultural families, this study collected relevant studies and applied meta-analysis. As a result, it was found, first, their life satisfaction was between the small effect size and the moderate effect size, on the basis of the relevant variables and Cohen's standards(1992). Second, of the sub variables of their individual characteristic variable, Korean proficiency and nationality acquisition were found to be the small effect size. Third, of the sub variables of their psychological variable and multiple culture-related variable, the effect sizes of self-esteem and the receptive attitude towards multiple cultures were found to be between the moderate effect size and the large effect size. Fourth, the sub variables of their social support variable were found to be generally highly correlated with their life satisfaction. Fifth, the sub variables of daily life and spouse-related variables showed very low levels of effect size overall. This study suggested conclusions and limitations of the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analyses.

■ keyword : | Wom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Life Satisfaction-related | Meta-analysis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국은 국가간의 교류 증대 및 세계화의 흐름속에서 결혼이주여성 즉 다문화가정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체류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건수의 증가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한국사회에서도 다문화가정 여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를 여러 분야에서 진행하고 있다. 초기 연구에서 생활 및 적응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다면 최근에는 문화적응에 대한 스트레스나 생활만족도, 성역할과 관련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들 연구 중 특히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1][3][7][10][11][14][24][27][30]. 이는 곧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다. 적응이란 문화, 언어,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하고 부부관계나 생활방식, 역할 기대, 배우자의 가족, 자녀양육 등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한다[14]. 즉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은 일반인의 생활보다 극복해야 할 사안과 어려움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에서 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Neugarten 등(1961)은 일상을 구성하는 활동의 기쁨,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의미와 책임감, 자신의 목적에 대한 성취감, 긍정적 자아상과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낙관적인 태도와 감정을 생활만족도라 하였다[6][40]. 생활만족도 대신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삶의 질은 행복, 만족, 긍정적 정서 등이 내포된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하고 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오는 만족감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36].

다문화가정의 결혼은 속성결혼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 부부 상호간의 문화적 공유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이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결혼생활이 일반 부부보다 많은 갈등과 문제요인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이주한 여성들은 경제적 격차로 인해 가족 내에서의 지위 확보의 어려움도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다문화가정 여성들은 가

부장적 가치관으로 인해 가족 내 권력적 위계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갈등과 위계적 가족구조의 경험은 낮은 생활만족도를 인식하게 만들고 점차 가족갈등 및 가족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14][28].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문화적응 관련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지지 요인 등 연구별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들의 선행 연구를 간단히 요약해 보면 본인 및 배우자 변인 [12][13][15][16][19][23][26][33], 문화적응 및 특성 변인 [20][21][31][35], 심리적 변인[22][25], 사회적지지 변인 [2][8][9][11][17][34]이 있다. 그 외 의사소통 변인[29], 사회적 배제 변인[32], 성 역할 정체감 변인[18] 등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생활만족도는 개별연구마다 관련된 변인의 구성요소가 다르고 특정변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개별연구들의 결과들은 동일변인에 대하여 상이한 결과도 존재하므로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나타난 변인들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한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개별의 연구들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통계적 유의미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다. 즉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연구결과를 독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의 산출이 필요하다[4].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종합하는 메타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주목하여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변인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생활만족도는 배우자 변인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므로 결혼만족도의 선행연구 역시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메타분석은 공통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 개별 연구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하

여 수치 비교를 하는 수량적 접근방법으로,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을 줄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분석결과를 매개변인별로 파악할 수 있어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추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37].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으로 개인특성 변인, 심리 변인 및 다문화 관련변인, 사회적지 변인, 일상생활 및 배우자 환경 변인을 설정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메타분석의 방법으로 연구결과를 통합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분석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의 개발과 적용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의 평균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조절변수(논문유형, 표본 수, 출판연도)가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의 효과크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수집 및 선정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메타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학술지 및 학위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국내 학술논문 전자 검색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http://riss.kr)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생활만족도’를 키워드로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 중 중복된 논문에 대해서는 둘 중 한 편은 제외하였다. 박사 학위논문을 재정리하여 발표한 학술지 논문 등은 학술지 논문으로 포함시켰다. 수집된

논문들은 먼저 제목 및 초록을 검토하여 상관관계를 통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으로 선정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1차적으로 선택된 논문은 전문을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논문의 전문을 검토하는 기준으로 첫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상관계수, 표본수가 표시된 논문을 선택하였고, 둘째, 양적연구를 하였지만 연구결과에 필요한 통계적 수치(피어슨 상관계수)가 없어 효과크기로 변환이 불가능한 논문 등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셋째, 중복된 표본을 사용한 연구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선정하여, 최종 분석대상 논문은 석·박사 학위논문 33편, 학술지 논문 10편으로, 총 43편이다. 분석대상 논문은 [표 1]과 같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 변인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위해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43편의 논문에서 독립변수 관련변인 4가지를 추출하여 입력하였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개인특성 변인, 다문화가정 여성의 심리 및 다문화 관련변인, 사회적지 변인, 일상생활 및 배우자 환경 변인으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변수를 입력하였다. 종속변수는 생활만족도로 설정하였다. 일반적 코딩항목으로는 연구자, 상관계수, 표본수, 출판연도, 논문유형 등을 설정하였다. 수집된 분석 자료의 코딩기준표는 [표 2]와 같다. 이렇게 분류,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 입력된 자료에 대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 Biostat사가 개발한 메타분석 전용 프로그램인 CMA(Comprehensive Meta-Analysis) 2.0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논문

NO	연구자	연도	논문 유형	표본수
1	박영숙	2008	석사	137
2	윤령인	2012	석사	100
3	이향범	2012	석사	202
4	채병희	2009	석사	114
5	최보희	2011	석사	150
6	김성철	2010	석사	185
7	유현주	2014	석사	208
8	선경자	2010	석사	642

9	김나영	2007	석사	128
10	임동현	2012	석사	204
11	김정혜	2009	석사	200
12	윤혜영	2009	석사	118
13	지은숙	2007	석사	105
14	이재화	2011	박사	263
15	서옥희	2009	석사	188
16	김종석	2012	석사	81
17	이은정	2011	석사	500
18	이창병	2015	석사	202
19	박미정	2007	석사	220
20	김민경	2012	석사	106
21	김인철	2008	석사	181
22	강순정	2008	석사	98
23	최경숙	2006	석사	80
24	강현	2012	석사	69394
25	우지혜	2014	석사	8790
26	이유경	2011	박사	306
27	이상훈	2013	석사	601
28	이은영	2012	석사	131
29	박미향	2014	석사	240
30	유영희	2011	석사	177
31	전미숙	2010	석사	92
32	오세자	2010	석사	60
33	이정숙	2009	박사	447
34	김미우·김영란	2011	학술지	359
35	원서진·송인옥	2011	학술지	380
36	윤명숙·최현미·김남희	2013	학술지	268
37	강기정·임재옥·이우영	2014	학술지	596
38	박은희·조인주	2011	학술지	187
39	이혜경·전혜인	2013	학술지	170
40	변미희·강기정	2010	학술지	84
41	배경희	2013	학술지	304
42	오금숙·김윤정	2013	학술지	248
43	정주연	2008	학술지	127

표 2. 코딩기준표

코딩 순서	구분	입력방법
1	연구자	연구자 이름
2	표본 수	유효 응답자수
3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	개인특성 변인 심리 및 다문화 관련변인 사회 적지지 변인 일상생활 및 배우자 환경변인
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변인
5	출판연도	출판연도
6	논문 유형	학술지, 박사·석사 학위논문
11	통계량 제시방법	상관계수(r)

2.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다문화가정 여성의 결혼만족도 관련변인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는 주제 선정 및 연구문제 설정, 2단계는 검토대상 연구물들의 수집 및 선정, 3단계는 분석대상 자료들의 변수 및 특성요인 코딩(coding), 4단계는 메타통계분석, 5단계는 분석결과의 제시와 해석, 메타통계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술하는 순서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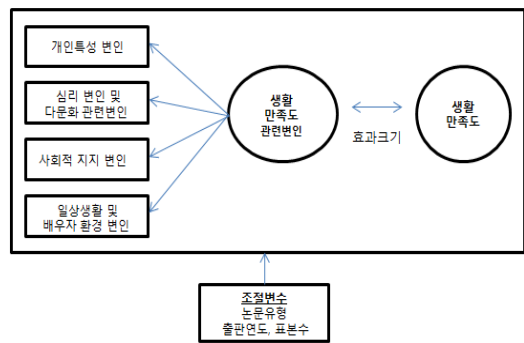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무선 효과모형으로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생활만족도 관련변인과의 총 효과크기를 먼저 제시하고,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 및 각 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크기를 제시하였다. 두 변수의 관계에서 효과크기를 산출한 뒤, 출판연도와 표본수, 논문유형에 따라 메타ANOVA와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생활만족도 관련변인

관련변인	하위변수
개인특성 변인	건강상태, 국적취득여부, 본인연령, 본인직업유무, 본인학력, 한국어능력
심리 및 다문화 관련 변인	다문화복지만족, 다문화서비스이용경험, 다문화수용태도, 사회참여, 우울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성역할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변인	가족지지, 물질적지지, 사회적지지, 이웃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지지, 친구지지, 평가적 지지
일상생활 및 배우자변인	결혼기간, 배우자 연령, 배우자 직업유무, 배우자 학력, 부부관계, 생활수준, 월소득, 의사소통, 자녀수, 한국거주기간

III. 연구결과

1.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들의 평균 효과크기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들에 대한 메타분석을 하기 위해 총 4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평균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표 4.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의 평균효과크기(ES=효과크기)

ES 사례수	ES	LL (Lower Limit)	UL (Upper Limit)	Z	P
226	.175	.122	.227	6.376	.000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전체에 대한 평균 효과크기는 .175로 나타났다. Cohen(1992)의 해석기준에서 보면 상관계수 효과크기는 $r \geq .10$ 을 작은 효과크기로, $r \geq .25$ 를 중간 효과크기로, $r \geq .40$ 을 큰 효과크기로 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간의 평균 효과크기인 .175는 작은 효과크기와 중간 효과크기의 사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표본의 크기와 효과크기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2]의 Funnel plot에서 보는 것처럼,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간의 메타분석에 대한 출판편향을 확인한 결과, 출판편향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Duval과 Tweedie(2000)의 Trim-and-Fill을 이용하여 비대칭을 대칭으로 교정한 후, Funnel plot의 추가된 점을 확인해 보았다[39]. [표 5]를 보면 본 연구의 Funnel plot에는 추가된 점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간의 효과크기는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 5. Duval과 Tweedie의 Trim-and-Fill 교정값

구분	교정될 연구	ES	LL	UL	Q값
관찰값		.17472	.12166	.22679	2634.657
교정값	0	.17472	.12166	.22679	2634.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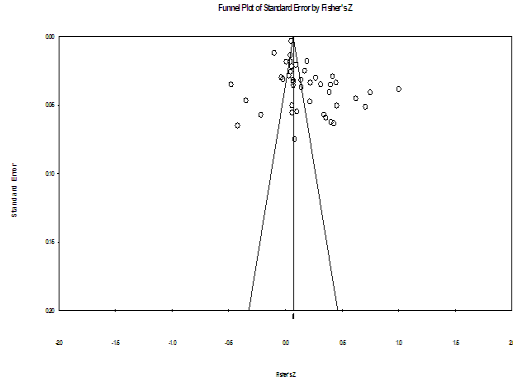


그림 2. Funnel plot

2.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 크기

생활만족도 관련변인별로 효과크기는 [표 6]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지지 변인이 효과크기 .330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특성 변인은 .041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및 배우자 변인은 .006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심리 변인 및 다문화 변인은 -.139로 나타났다. Cohen(1992)의 해석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지지 변인은 생활만족도와 중간 효과크기 이상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대상 논문에서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의 총 효과크기 사례수는 226개이며, 제시된 관련변인별 효과크기 외에 기타변인의 효과크기 사례수는 26개로 나타났다.

표 6. 생활만족도 관련변인별 효과크기

관련 변인	ES	ES 사례수	LL	UL	df(Q)/Q	P
개인 특성	.041	45	.004	.077	17.830 /5	.003
심리 및 다문화	-.139	44	-.180	-.099	201.764 /7	.000
사회적 지지	.330	56	.280	.378	45.081 /7	.000
일상생활 및 배우자 환경변인	.006	55	-.012	.024	23.318 /9	.006

1.1 개인특성 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크기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 중 개인특

성 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크기는 [표 7]과 같다. 개인 특성 변인의 하위변수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개인특성 변인 하위변수별 효과크기

하위 변수	ES	ES 사례수	LL	UL	df(Q)/Q / P
건강상태	.083	3	-.261	.408	df(Q):5 Q-value : 17.830 P-value : .003
국적취득 여부	.127	2	.029	.000	
본인연령	-.056	13	-.125	.015	
본인직업 유무	-.595	4	-.958	.504	
본인학력	.013	10	-.052	.079	
한국어 능력	.126	13	.055	.195	
전체	.041	45	.004	.077	

Q값이 17.830, df(Q)=5, p=.003으로 나타났으며, 개인 특성 변인의 하위변수 중 한국어 능력의 효과크기가 .126, 국적취득여부의 효과크기는 .127로 나타났다. Cohen(1992)의 해석기준으로 볼 때, 작은 효과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건강상태, 본인연령, 본인 직업유무, 본인학력 등은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2 심리변인 및 다문화 관련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 크기

심리변인 및 다문화 관련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크기는 [표 8]과 같다. Q값이 17.830(df(Q)=7, p=.000)으로 심리변인 및 다문화 관련변인의 하위변수에 따라 생활만족도의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효과크기는 .347, 다문화 수용태도는 .313, 다문화 복지만족은 .197, 다문화 서비스 이용경험은 .062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태도 등은 중간 효과크기와 큰 효과크기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문화 복지만족과 다문화 서비스 이용경험, 사회참여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그 외 변인으로 볼 수 있는 다문화 수용태도,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감, 자아존중감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1.3 사회적지지 관련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크기

사회적지지 관련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크기는 [표 9]과 같다. Q값이 45.081(df(Q)=7, p=.000)으로 사회적 지지 관련변인의 하위변수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적지지의 효과크기가 .4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가적지지는 .435, 정서적지지는 .424, 사회적 지지는 .409, 물질적 지지는 .386, 가족지지는 .202, 친구지지는 .103으로 나타났다. 가족지지와 이웃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1.4 일상생활 및 배우자 관련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 크기

일상생활 및 배우자 관련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크기는 [표 10]과 같다. Q값이 23.318(df(Q)=9, p=.006)으로 일상생활 및 배우자 관련변인의 하위변수에 따라 생활만족도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관계의 효과크기가 .32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은 .214로 나타났다. 남편직업유무, 남편학력, 월소득, 자녀수 등의 변수는 효과크기가 아주 낮게 나타났다으며, 결혼기간, 의사소통, 한국거주기간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효과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부부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8. 심리변인 및 다문화 관련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크기

하위 변수	ES	ES 사례수	LL	UL	df(Q) / Q / P
다문화 복지만족	.197	3	-.199	.538	df(Q):7 Q-value: 201.764 P-value: .000
다문화 서비스 이용경험	.062	4	-.126	.247	
다문화 수용태도	.313	7	.194	.424	
문화적응 스트레스	-.301	5	-.044	-.137	
사회참여	.386	2	-.089	.717	
성역할 태도	-.061	7	-.331	.218	
우울감	-.330	4	-.376	-.283	
자아 존중감	.347	12	.245	.441	
전체	-.139	44	-.180	-.099	

표 9. 사회적지지 관련변인 하위변수별 효과크기

하위 변수	ES	ES 사례수	LL	UL	df(Q)/Q/P
가족지지	.202	8	-.008	.395	df(Q):7 Q-value :45.081 P-value :.000
물질적 지지	.386	6	.247	.509	
사회적 지지	.409	18	.288	.517	
이웃지지	-.052	2	-.198	.096	
정보적 지지	.450	6	.338	.550	
정서적 지지	.424	6	.301	.533	
친구지지	.103	4	-.112	.309	
평가적 지지	.435	6	.302	.551	
전체	.330	56	.280	.378	

표 10. 일상생활 및 배우자 관련변인의 하위변수별 효과크기

하위 변수	ES	ES 사례수	LL	UL	df(Q)/Q/P
결혼기간	-.105	10	-.225	.018	df(Q):9 Q-value: 23.318 P-value: .006
남편연령	-.074	4	-.136	-.011	
남편 직업유무	.009	2	-.012	.030	
남편학력	.055	3	-.177	.280	
부부관계	.326	3	-.340	.775	
생활수준	.214	6	.069	.350	
월소득	.047	13	-.012	.105	
의사소통	-.002	7	-.214	.210	
자녀수	.002	2	-.119	.123	
한국 거주기간	-.207	5	-.418	.025	
전체	.006	55	-.012		

3. 출판연도, 표본수 및 논문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결과

전체 효과크기 226개를 대상으로 하여 출판연도 및 표본수에 따른 메타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는 [표 11][표 12]과 같다.

표 11. 출판연도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결과

구분	통계치	SE	Z	P
기울기	.0025	.0078	.32	.7474
절편	-4.8770	15.6065	-.31	.7547

표 12. 표본수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결과

구분	통계치	SE	Z	P
기울기	-.000	.000	-1.85	.0639
절편	.1599	.0171	9.38	.000

출판연도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물 전체 조사시기인 2004년에서 2014년까지의 효과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울기는 .002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았다.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나타났지만 효과 크기가 증가한다고 보기에는 수치가 너무 미미하였다. 표본수에 따른 메타회귀분석 결과, 기울기는 -.000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표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크기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유형은 박사 학위논문, 석사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표 13]와 같다. Q 값이 .277(df(Q)=2, p=.871)로 집단 간의 효과크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학위논문의 효과크기는 .155, 석사 학위논문의 효과크기는 .142, 학술지 효과크기는 .169로 나타났다.

표 13. 논문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하위 변수	ES	ES 사례수	LL	UL	df(Q)/Q/P
박사	.155	13	-.005	.307	df(Q):2 Q-value: .277 P-value: .871
석사	.142	177	.109	.175	
학술지	.169	36	.070	.265	
전체	.145	226	.114	.176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간의 효과크기를 살펴보았다. 분석방법으로는 메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는 관련변인(개인특성 변인, 심리변인 및 다문화 관련변인, 사회적지지 변인, 일상생활 및 배우자 관련변인)의 평균효과크기는

.175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크기는 Cohen(1992)의 기준으로 작은 효과크기와 중간 효과크기의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관련변인 중 사회적지지 변인이 효과크기가 가장 높게 나타나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표본의 크기와 효과크기 관계를 보여주는 Funnel plot에서 분석대상 연구물의 출판편향을 확인한 결과 출판편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 간의 효과크기는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개인특성 변인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한국어 능력과 국적취득여부가 작은 효과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변수인 건강상태, 본인연령, 본인직업유무, 본인학력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개인특성 변인이 생활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낮지만, 한국어능력과 국적취득여부는 생활만족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심리변인 및 다문화 관련변인의 하위변수 중에서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태도의 효과크기가 중간 효과크기와 큰 효과크기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해 자아존중감은 높이고 스트레스 및 우울감 요인 등은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사회적지지 변인의 하위변수 중에서는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정서적지지, 사회적지지, 물질적지지가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의 하위변수들과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일상생활 및 배우자 관련변인의 하위변수에서는 전체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효과크기로 나타났다. 하위변수 중 부부관계만이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변수가 생활만족도와 아주 낮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섯째, 출판연도, 표본수에 따른 메타회귀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시간의 흐름이나 표본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크기는 증가하지 않았다.

논문유형에 따른 분석에서도 집단 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분석결과에 제시된 것처럼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회적지지 변인이다. 사회적지지 변인 중 정보적지지, 평가적지지, 정서적지지가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은주·전미경(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8]. 이은주·전미경(2013)의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정서적지지가 결혼생활의 만족과 스트레스 감소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28]. 이것은 정서적지지가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여성에게 정서적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지지 혹은 지역의 복지센터 등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 및 배우자관련 변인 중 부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최근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부부갈등 해결을 위해 의사소통의 전략과 전문적인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다문화가정 부부의 관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메타분석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 연구물들을 메타분석에 모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문화가정’, ‘생활만족도’라는 특정 단어로 검색하여 관련 연구물이지만 제목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여성의 생활만족도 관련변인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수로서 연구물 관련 변수인 논문유형, 출판연도, 표본수를 설정하였으나, 본 연구와 관련된 조절변수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가 축적이 된다면 추후연구에서는 조절변수, 예를 들면 국적과 같은 요인을 설정하여 조절변수가 제시된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 문헌

- [1] 강기정, 임재욱, 이무영, “결혼이주여성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제19권, 제3호, pp.387-404, 2014.
- [2] 장순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3] 강현,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연구: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4] 공은화, *학습조직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5] 김금희, 민기연, 이영선,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및 관계 증진 프로그램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1호, pp.202-214, 2015.
- [6] 김미라,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7] 김미우, 김영란,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5권, 제1호, pp.111-142, 2011.
- [8] 김민경,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9] 김성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성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0] 김중석,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1] 박미정, *사회적지지가 결혼이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2] 박미향,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13] 박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93-402, 2011.
- [14] 박은희, 조인주, “결혼이주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8권, 제2호, pp.29-56, 2011.
- [15] 배경희,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가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회*, 제41권, pp.33-54, 2013.
- [16] 변미희, 강기정, “다문화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련요인,” *한국가족복지학회*, 제15권, 제2호, pp.127-141, 2010.
- [17] 오금숙, 김윤정, “여성결혼 이민자의 사회적지지, 부부친밀감, 생활만족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건강학회지*, 제3권, 제1호, pp.15-25, 2013.
- [18] 오세자, *국제결혼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사회적지지 및 결혼만족도: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과 필리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19] 우지혜,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부부평등, 사회적지지, 사회참여 중심으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20] 원서진, 송인옥,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문화적, 사회적특성이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2호, pp.95-113, 2011.
- [21] 유영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충청북도지역을 중심으로, 동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2] 윤령인, “결혼이민자여성의 자아존중감, 한국어능력, 남편의 아내 모국어능력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제10권, pp.213-232, 2011.
- [23] 윤명숙, 최현미, 김남희,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응주 문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가정폭력 피해경험의 다중 매개효과,”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제42권, pp.83-111, 2013.

[24] 이상훈, 한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자본과 생활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25] 이유허,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와 문화적응의 다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6] 이은영, 다문화가정 부부의 생활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7] 이은정, 다문화가족부부의 가족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8] 이은주, 전미경,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지지와 관련된 변인 메타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1권, 제5호, pp.125-141, 2013.

[29] 이재화, 다문화가정여성의 가족관계 스트레스에 따른 사회적지지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0] 이정숙, 결혼이주여성의 결혼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1] 이혜경, 전혜인, “결혼이주여성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회, 제18권, 제4호, pp.413-432, 2013.

[32] 임동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적배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33] 전미숙,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배우자 인식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34] 정주연, “베트남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가족관계와 이주여성이 인지한 사회적지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학생연구논총, 제1권, pp.228-262, 2008.

[35] 채병희,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경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36] 한영란, “만성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추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권, pp.27-48, 1997.

[37] B. Kim and M. Han, “Effects of mental practice on motor performance in Korea: a meta-analysis,” Korea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Vol.6, No.1, pp.67-88, 1995.

[38] J. Cohen,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Vol.112, No.1, p.155, 1992.

[39] S. Duval and R. Tweedie, “Trim and fill: A simple funnel-plot-based method of testing and adjusting for publication bias in meta-analysis,” Biometrics, Vol.56, pp.455-463, 2000.

[40] B. L. Neugarten, R. J. Havighurst, and S. S. Tobin,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16, No.2, pp.134-143, 1961.

저 자 소 개

공 은 화(Eun-Hwa Gong)

종신회원



- 2000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경제학사)
- 2008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초빙교수
<관심분야> : 평생교육방법, 효능감, 메타분석

신 유 경(Yu-Kyung Sin)

정회원



- 2004년 2월 : 계명대학교 국문학과(문학사)
- 2013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석사)
- 2015년 2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한국폴리텍 대학 외래교수
<관심분야> : 감정노동, 평생교육 프로그램, 질적연구